MULTI ASSET STRATEGY

2026. 1. 5.

글로벌 투자전략팀

유승민 Chief strategist
strategist.you@samsung.com

이지혜 RA
jhye53.lee@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베네수엘라 사태와 금융시장(II)

초기 영향 제한적 예상, 향후 수일이 중요

- 美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자국으로 압송
- 주초 금융시장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일단 미국의 군사작전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
- 다만, 향후 수일 중요. 상황 안정 또는 2차 공습 및 장기화 결정의 기로.

현지시각 1월 3일 새벽,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을 체포. 현재 마두로 부부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 상태.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의 퇴진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가운데,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바 있음.

당사는 지난 해 11.18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했을 경우,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할 최대 변수로 '장기전 여부'를 제시. 미국에 최선은 약한 강도의 군사작전 수행을 통해 마두로 정권과 마약 카르텔의 항복을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 이 점에서 이번 작전은 전술적 차원에서 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됨.

군사작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정의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running)'할 것이라고 선언. 다만 미국이 어느 수준과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 따라서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번 작전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켜볼 일.

현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에 강력한 저항을 계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2차 대규모 침공을 감행할 전망. 이 경우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짐. 2003년 이라크 사례를 참고. 당시 미국과 연합국은 '바트당' 정권을 붕괴시켰으나, 새 정권을 수립할 정당성을 가진 반대 세력이 없어서 곤란에 처함.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후 5년 이상 반군 진압 작전에 휘말렸고, 이후에도 이라크 내정 불안의 책임론에 시달리게 됨.

주초 금융시장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일단 미국의 군사작전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 또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글로벌 대비 규모가 미미하며(전 세계 GDP 대비 0.11%에 불과), 주식(IBVC)와 채권시장이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과 연결은 강력하지 않음.

다만 세계 최대 석유 확인 매장량 보유 국가로서, 지난 해 하반기 하루 최대 110만 배럴 생산(과거는 최대 3백만 배럴).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위험은 원유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지, 또한 장기전으로 연장될 지 등이 중요한 잠재적 변수. 따라서 향후 수일이 중요.

한편,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며 지정학적 반미세력에 대해 경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美 우선주의의 후퇴와 먼로주의 부활 등을 주목. 그러나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격한 기조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